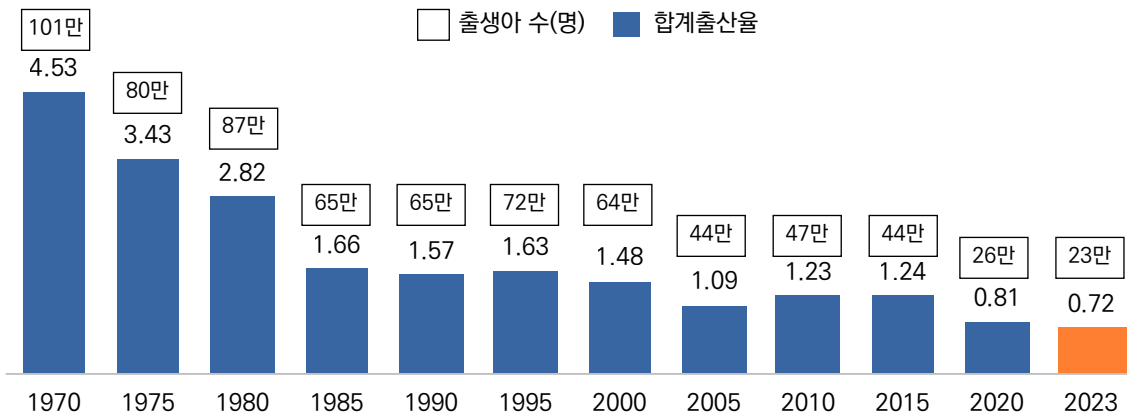




## [2023 합계출산율] 2023년 합계출산율 0.72명!

- 지난 2월 28일 통계청의 '2023년 출생·사망 통계'가 발표됐는데 합계출산율 0.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. 약 50년 전인 1970년부터 현재까지 '출생아 수'와 '합계출산율'을 추적해보니, 1970년 100만 명이 넘었던 출생아 수가 지속해서 감소해 2010년 절반으로 떨어졌고, 반세기가 지난 2023년엔 1/4수준까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합계출산율은 1970년 4.53명이었으나 1980년에 2명대가 무너진 이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20년 이후에는 1명대 미만까지 떨어진 상태이다.

[그림] 연도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\*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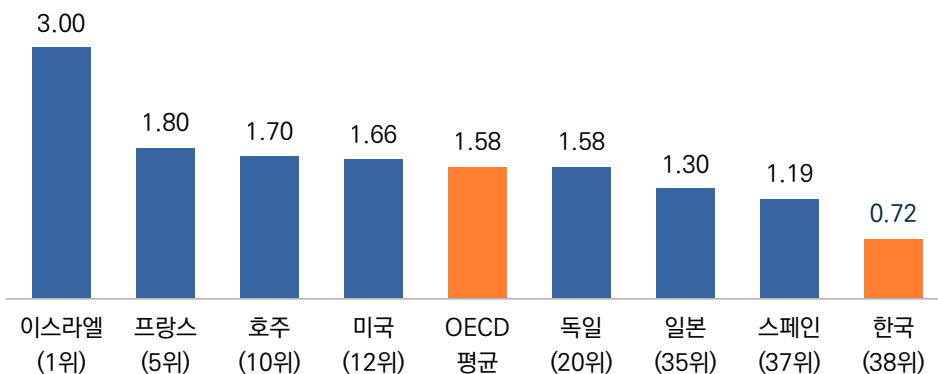
※출처 : 통계청 KOSIS, '인구동향조사(출생아수, 합계출산율/분기별 인구동향)', 2024.02  
[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orgId=101&tblId=INH\\_1B8000F\\_01&conn\\_path=I2](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orgId=101&tblId=INH_1B8000F_01&conn_path=I2)  
[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orgId=101&tblId=DT\\_1B8000G&conn\\_path=I2](https://kosis.kr/statHtml/statHtml.do?orgId=101&tblId=DT_1B8000G&conn_path=I2)

\*가임기(15~49세)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

## 한국의 합계출산율, OECD 최하위로 평균의 절반 수준!

- OECD 38개 회원국 대상 합계출산율을 비교해 보았다. OECD 합계출산율 평균은 1.58명이며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(3.00명), 가장 낮은 나라는 한국(0.72명)이었다.
- OECD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0.72명으로 유일했고 바로 앞에 랭크된 스페인(37위)과도 큰 격차를 보여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.

[그림] OECD 주요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(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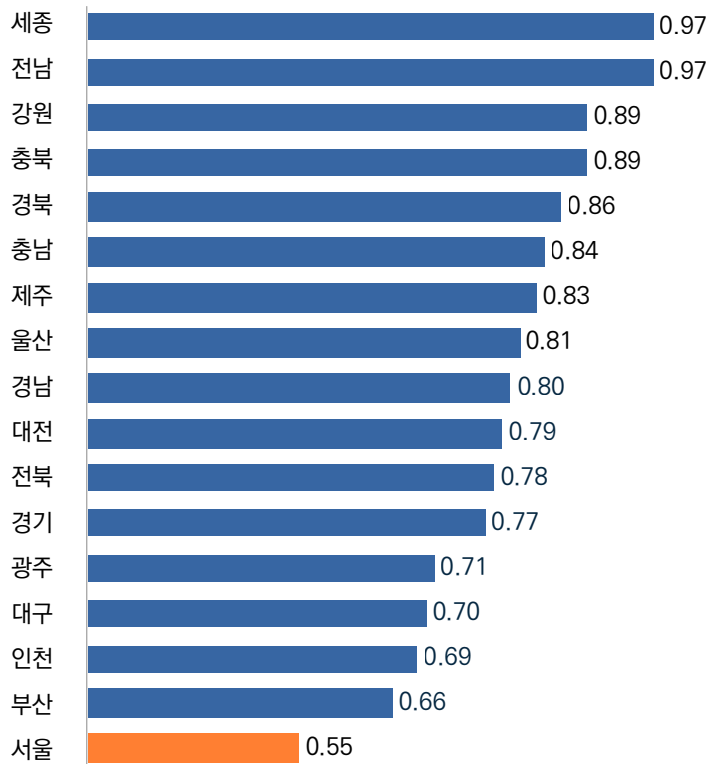


※출처 : 통계청, '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·사망통계(잠정)', 2024.02.27.  
 Note) 한국은 2023년, 회원국은 2021년 기준/ OECD 평균은 38개 회원국의 2021년 자료로 산출

## 서울 합계출산율, 0.55명으로 전국 최저!

- 우리나라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본 결과,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·전남이 0.97명으로 가장 높았으나 1명을 채 넘지 못했고, 최하위는 서울(0.55명), 2위는 부산(0.66명)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2개의 도시가 차지했다.
-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'전남 영광군'이 1.65명으로 가장 높았고,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라도 지역의 출산율이 상위 10위권 중 6개가 포함돼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 하위권 1위는 '부산 중구'로 0.31명이었고, 하위 10위권 중에 서울이 8개를 차지해 서울의 낮은 출산율 실태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.

[그림] 시도별 합계출산율 (명)



[표]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(명)

순위	상위 10위		하위 10위	
	시군구명	출산율	시군구명	출산율
1	전남 영광군	1.65	부산 중구	0.31
2	전남 강진군	1.47	서울 관악구	0.38
3	경북 의성군	1.41	서울 종로구	0.4
4	전북 김제시	1.37	서울 광진구	0.45
5	강원도 인제군	1.36	대구 서구	0.48
6	전남 해남군	1.35	서울 마포구	0.48
7	경북 청송군	1.34	서울 강북구	0.48
8	전북 진안군	1.32	서울 은평구	0.52
9	전북 임실군	1.3	서울 도봉구	0.52
10	강원도 양구군	1.28	서울 양천구	0.53

※출처 : 통계청, '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·사망통계(잠정)', 2024.02.27.